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 교인 : 강하울(에스더목장), 강민수
2.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강북시찰 가을시찰총회가 9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동두천 언덕 위의 신흥교회에서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 참석합니다.
4. 다음 주일 예배기도 담당은 신태식 장로님입니다. 오후예배는 박선경 집사님입니다.
5.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새 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6.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인도자	신태식 장로	이준화 집사	인도자
예배기도(오후)	김화현 집사	박선경 집사	배은희 집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반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9/2)	주사랑목장(9/9)	에덴목장(9/16)	갈렘목장(9/23)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 장승호 집사님, 김경순 집사님, 오지원 집사님
6.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인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 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같은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장 10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09장 (통 409장)	다같이
기도	김화현 집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창 12:4-5	다같이
말씀선포	‘결단의 신앙’(1)	허영진 목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23장 (통 355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5:1-9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4)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사 59:16, 막 6:5-6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46:6-11 ‘삶에 기적을 만나다’(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거의 몇 년 만에 누이를 만나러 가는 길. 차창에 비치는 영주시는 언젠가 한 번은 들렀을 법한 작은 도시의 모습이었다. 가게가 밀집한 변화가라고 해도 높은 건물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하나 둘 지붕을 잇대어 들어섰을 가게가 즐비한 좁은 도로를 빠져나오면, 눈앞에 거짓말처럼 초록빛의 세상이 펼쳐졌다. 뜨거운 별에 버는 부쩍부쩍 자라고 무성한 나뭇잎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어디 그 뿐이라. 사과와 고장답게 찾길 양 쪽에는 먹음직스러운 붉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도착한 누이 집은 들 한 가운데 지은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서 있었다.

반갑게 맞는 이들의 환대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이 더 크게 마음 쓰였다. 일흔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꾸로 사는 것처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셨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지. 당신들의 삶도 빠듯할 텐데 동생네 안부 물기에 사랑이 묻어난다. 노부부는 이른 아침 기도할 때마다 기도제목 가운데 우리 하늘문교회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한다. 먼 곳이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사랑을 나누고 계셨다. 노후의 삶이 예수의 길을 걷고 있어 그 짧은 만남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영성가이며 노동운동가인 도로시 데이는 분주한 가운데도 일상의 한 부분을 잘라내 하나님 앞에 서는 까닭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른 샘이 되지 않으려면 나 역시 이처럼 달디단 샘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 속에 주님을 닮으려는 사랑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흙덩이에 불과하다. 죽어라 내달리지만 하는, 그래서 억박지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오직 예수의 길만이 정답이기에. 계절이 바뀌고 있다. 따가운 햇볕이 쬌는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가을의 사이를 지나고 있다. 잠시나마 분주함을 내려놓고 청명해진 하늘을 보자. 한결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지 않을까.

Written by 허영진